



1<sup>st</sup> Week January 2025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Vol. 23

---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청년, 대통령, 차고지, 미래, 새해
경제·관광	관광객, 지원사업, 생산, 농업, 감귤
지역·사회	대통령/체포영장/공수처, 희생자, 도로, 환자, 불법

※ 분석 기간 : 25.01.01~25.01.08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8-9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업인 농기자재 지원</li> <li>- K-패스 환급 확대</li> <li>- 제주형 RISE 프로젝트</li> </ul>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포영장 논란</li> <li>- 경제정책 협의회</li> <li>- 야당 비판</li> </ul>
	차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고지증명제 개정</li> <li>- 차고지 면제 대상 확대</li> <li>- 공영 주차장 환불</li> </ul>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교통체계</li> <li>- 탄소중립 도시 관리</li> <li>- AI 도로관리 시스템</li> </ul>
	새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경제 활성화</li> <li>- 경제성장 전망</li> <li>- 농업지원 강화</li> </ul>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10~11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 감소</li> <li>- 관광 접근성 확대</li> <li>- 제주 관광홍보 강화</li> </ul>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수출 지원</li> <li>- 청년 취업 지원</li> <li>- 지역 공익 사업</li> </ul>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동채소 가격 상승</li> <li>- 농업 지원 강화</li> <li>- 농산물 유통 확대</li> </ul>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농업 미래 전략</li> <li>- 청정 농업 브랜드화</li> <li>- 청년 농업인 지원</li> </ul>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 유통 혁신</li> <li>- 감귤 브랜드 가치</li> <li>- 감귤 생산량 변화</li> </ul>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12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대통령/체포영장/공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체포영장 논란</li> <li>- 여객기 참사 국가 애도</li> <li>- 내란 혐의 비판</li> </ul>
	희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li> <li>- 4·3 사건 가족관계 정정</li> <li>- 항일운동 해녀 희생자</li> </ul>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li> <li>- 도로 포장 개선 논란</li> <li>- AI 도로 관리 시스템 도입</li> </ul>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li> <li>- 응급환자 헬기 이송</li> <li>- 독감 및 코로나 환자 급증</li> </ul>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어업 단속</li> <li>- 도로 불법 주정차</li> <li>- 간첩 조작 사건 재심</li> </ul>

##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 중국

- ✓ 최근 중국경제발전 보고에 따르면, 중국경제 개방 지수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3.4% 상승하며, 제도적 개방과 법치화 향상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 연해 지역과 내륙 간 균형 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 경제 발전 도모
- ✓ 중국과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 환경보호 등 신흥 산업의 규제 완화와 투자 보호 체계 강화, 협정 개정은 무역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협력 모델 확대 목표로 설정
- ✓ 중국인민은행은 2025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며, 금리 조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제 안정성과 성장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 금융 시스템 고도화를 병행할 계획
- ✓ 후베이성 이창(宜昌)은 친환경 선박 산업을 통해 장강 수로 녹색 물류를 선도하며, 연간 300척 이상 생산을 목표로 글로벌 선박 제조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 수립
- ✓ RCEP 시행 3년간 무역 장벽 완화와 통관 간소화로 농산물 및 제조품 교역이 증대되고 공급망 통합이 가속화 추진, 회원국 간 협력은 경제적 이익과 무역 자유화 촉진에 기여
- ✓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연구와 금융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 추진
- ✓ 윈난성은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구조 전환과 탄소 배출 감축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 확대를 지속 가능성 강화
- ✓ 인공지능 빅모형 산업은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으로 급성장하며, 데이터 활용 및 개발 비용 문제가 도전 과제로 지적됨. 정부와 산업계 협력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 중국 에너지법 시행으로 수소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로 포함되며, 수소 연료전지와 인프라 확장을 통해 산업 발전 및 경제적 가능성 확대 추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목표로 설정
- ✓ 중국 탄소 배출권 시장은 누적 거래액 430억 위안, 거래량 6.3억 톤을 기록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국제 협력 확대와 시장 확장 계획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는 내수와 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2025년 GDP 최대 6% 성장을 목표로 설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역내 협력을 통해 경제적 위치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 ✓ 말레이시아는 태국 국경의 불법 통로를 AI 기술로 폐쇄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를 억제, AI를 활용한 국경 관리 효율성 증대와 물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정
- ✓ 말레이시아는 소셜미디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CASP 허가제를 도입하여 플랫폼 규제와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며,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

## ○ 태국

- ✓ 태국은 2025년 브릭스 파트너 국가로 가입해 무역, 투자, 관광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협력체로서 아세안 내 경제적 입지를 확대하며 중장기적 협력 도모
- ✓ 태국은 논타부리주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전력망 개선과 경제성장 기여를 목표로 설정

## ○ 필리핀

- ✓ 필리핀은 EU 무역 혜택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아세안 중심 무역 전략으로 전환하며, 신규 무역 협정을 통해 역내 교역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 다각화 추진
- ✓ 필리핀은 신재생에너지 경매를 확대하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35%를 목표로 설정, 바이오연료 및 전기차 인프라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병행 추진
- ✓ 필리핀 경제는 2024년 아시아 최고 성장률인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지출 확대와 인프라 투자 증가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며 상위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

## ○ 베트남

- ✓ 베트남은 중국산 풍력타워에 97%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제조업 보호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며 관련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
- ✓ 베트남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며 소셜미디어 사용자 신원 확인과 불법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하고, 게임 이용 제한 정책을 통해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와 사회적 영향 완화를 도모

## ○ 일본

- ✓ 도쿄가스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완공하여 연간 약 17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며, 목질 펠릿 연료를 사용해 탄소 중립 목표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추진
- ✓ 교토시는 2025년 4월부터 제2자녀 이상의 보육료를 전액 면제하며, 소득 제한 없이 약 5,5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 정책은 출산율 회복과 젊은 세대 유입을 목표로 설정

- ✓ 홋카이도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하며, 탈탄소화를 목표로 전문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을 병행
- ✓ 도쿄도는 2025년 4월부터 신축 단독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 하며, 보조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확대를 목표로 설정
- ✓ 파나소닉은 이리듐 없이 철과 니켈 화합물을 사용한 수소 생산 전극 기술을 개발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와의 결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
- ✓ 홋카이도는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와 신산업 진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며, 분산형 에너지 체계 강화 추진
- ✓ 규슈와 오키나와는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투자와 인바운드 관광 증가로 경제 활기를 얻고 있으며, 제조업과 관광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추진
- ✓ 일본은 여성 관리직 비율 확대를 위해 여성 활약 촉진법 개정을 추진 하며,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 문화와 육아 부담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모색
- ✓ 오사카 만국박람회는 개인 소비와 관광 수요 증가로 간사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박람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관광 자원 활용이 필요

## Contents

---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5년 1월 1일~1월 8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30건임
  - 정치·행정 분야 386건, 경제·관광 186건, 지역·사회 358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청년, 대통령, 차고지, 미래, 새해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업인 농기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 정책 시행, 45세 이하 농업 경영주 대상 확대</li> <li>· 1농가당 50만 원 한도로 비료, 농약 등의 구입비 지원 예정</li> </ul> </li> <li>- K-패스 환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자녀 포함 다자녀 가구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 적용</li> <li>· 월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50% 환급 가능</li> </ul> </li> <li>- 제주형 RISE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대학과 연계해 청년 인재 양성 및 AI·디지털 대전환 중점 추진</li> <li>· 관광 및 그린에너지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포함</li> </ul> </li> </ul>
-------	----	---

정치·행정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포영장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논란 대치 후 철수 결정</li> <li>· 영장 발부 연장되었지만 대통령 측 거부 지속</li> </ul> </li> <li>- 경제정책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 협의회 개최, 민생경제 지원 논의</li> <li>· 내수 활성화와 민생재정 조기집행 방안 검토</li> </ul> </li> <li>- 야당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경호처 활용에 대해 야당 강력 반발</li> </ul> </li> </ul>
	차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고지증명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 공영 주차장 임대료 50% 감액, 형평성 논란 발생</li> <li>· 감액된 임대료 정책에 대한 지역민 불만 제기</li> </ul> </li> <li>- 차고지 면제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경형차, 다자녀 가구 대상 차량 차고지증명 면제 추진</li> <li>· 도민 부담 감소 효과 기대, 원도심 문제는 미해결 상태</li> </ul> </li> <li>- 공영 주차장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고지증명 임대료 감액분, 기존 차량 대상 환불 예정</li> <li>· 상반기 내 환불 처리 완료 계획 발표</li> </ul> </li> </ul>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교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중온아스콘 도입으로 탄소배출 저감 추진</li> <li>· 자전거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전기자전거 보조금 제공</li> </ul> </li> <li>- 탄소중립 도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내 탄소중립 관리계획 마련, 온실가스 감축 초점</li> <li>· 친환경 공업단지 조성 및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 시행</li> </ul> </li> <li>- AI 도로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도로 관제 시스템 도입, 실시간 도로정보 수집</li> <li>· 태양광 기반 스마트 가로등 시범 설치</li> </ul> </li> </ul>
	새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경제 지원책 발표,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진작 캠페인 추진</li> <li>· 전통시장 지원과 소상공인 대상 긴급 자금 확대</li> </ul> </li> <li>- 경제성장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률 20% 전망 속 민생 예산 조기 집행 계획</li> <li>· 탐나는전 및 제로페이 통합 결제시스템 도입</li> </ul> </li> <li>- 농업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추위 대응 농작물 보호 대책 마련, 농가 지원 확대</li> <li>· 청년 농업인 정책 강화, 농업 경쟁력 확보 방안 발표</li> </ul> </li> </ul>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관광객, 지원사업, 생산, 농업, 감귤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관광객 감소,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제주 관광객 수 감소</li> <li>· 항공 좌석 감소와 여객기 사고 영향으로 관광 수요 위축 발생</li> </ul> </li> <li>- 관광 접근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공급석 확대와 공항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li> <li>· 민간 차원의 해외 교류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중점 추진</li> </ul> </li> <li>- 제주 관광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홍보사무소 중심 제주 관광 홍보 강화</li> <li>·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확대 운영 계획 발표</li> </ul> </li> </ul>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수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및 수출 바우처 사업 지원 진행</li> <li>· 수출지원 시책 합동설명회 개최로 정책 확대</li> </ul> </li> <li>- 청년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로 기업 인건비 지원</li> <li>· 지원 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li> </ul> </li> <li>- 지역 공익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맞춤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 공유</li> <li>·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활용 인공 바다숲 조성</li> </ul> </li> </ul>

경제·관광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동채소 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배추,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 상승</li> <li>· 기후변화로 생산량 감소, 병해 확산 등 원인 발생</li> </ul> </li> <li>- 농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기술 지원</li> <li>· 감귤 산업 혁신을 위해 유통협의회와 안정기금 조성</li> </ul> </li> <li>- 농산물 유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 명절 대비 주요 농산물 집중 공급 및 가격 안정화 노력</li> <li>· 다양한 거래처 확보로 농가 소득 증진 목표</li> </ul> </li> </ul>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농업 미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수입 4조 원 목표로 농업 경쟁력 확보 추진</li> <li>· 스마트 APC 구축 및 감귤 유통 혁신 협의회 신설</li> </ul> </li> <li>- 청정 농업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산 농축산물의 청정 브랜드 강화</li> <li>· 소비자 신뢰 확대를 위해 품질 관리 체계 마련</li> </ul> </li> <li>- 청년 농업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농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귀농 지원 확대</li> <li>· 농촌 인력 문제 해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강화</li> </ul> </li> </ul>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 유통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유통 체계 구축으로 감귤 시장 안정화 계획 추진</li> <li>· 감귤 수출 안정기금 신설로 해외 시장 확대 도모</li> </ul> </li> <li>- 감귤 브랜드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 품질 개선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해 협업 강화</li> <li>·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소비자 신뢰 증진</li> </ul> </li> <li>- 감귤 생산량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영향으로 감귤 생육 부진, 생산량 감소 추세</li> <li>·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지원 확대</li> </ul> </li> </ul>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대통령/체포 영장/공수처, 희생자, 도로, 환자, 불법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대통령/체포영장/공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체포영장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경호처 저지로 중단 상황 발생</li> <li>· 체포영장 재집행 요구와 시민들의 체포 촉구 대규모 집회 진행</li> </ul> </li> <li>- 여객기 참사 국가 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국가 애도 기간 중 체포영장 불발 논란 확대</li> <li>· 시민들의 추모와 함께 정치적 책임 요구 목소리 증가</li> </ul> </li> <li>- 내란 혐의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란 수괴 혐의 주장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는 시위</li> <li>· 국민의힘 대법원 항의 방문 논란으로 사법부 독립성 우려 제기</li> </ul> </li> </ul>
	희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및 관련 비판 시위</li> <li>· 국가적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 제기</li> </ul> </li> <li>- 4·3 사건 가족관계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정정에 필요한 정부위원 공석으로 행정 차질 발생</li> <li>· 탄핵 정국으로 유족 지원 정책 이행 지연 우려 확대</li> </ul> </li> <li>- 항일운동 해녀 희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일운동 참여 해녀들의 공적 인정 부족 문제와 재조명 요구</li> <li>· 독립운동 기여자들에 대한 자료 부족과 유족 증언 부족 상황</li> </ul> </li> </ul>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 1100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 반복</li> <li>· 단속 강화에도 관광객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지속</li> </ul> </li> <li>- 도로 포장 개선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산지천 사고석 도로 아스팔트 교체 계획</li> <li>· 보행자 안전과 노숙자 관리 우려로 주민 갈등 심화</li> </ul> </li> <li>- AI 도로 관리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포트홀 탐지 시스템 도입으로 도로 관리 효율화</li> <li>· 시범 운영으로 27개 포트홀 발견 및 보수 완료</li> </ul> </li> </ul>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유치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여행업자 문제</li> <li>· 진료비 탈세와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 개선 필요성</li> </ul> </li> <li>- 응급환자 헬기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자도 주민의 응급 상황에서 첫 헬기 이송 성공 사례</li> <li>· 섬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추가 대책 논의 필요성</li> </ul> </li> <li>- 독감 및 코로나 환자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로 백신 접종 권고</li> <li>· 노인 및 면역 약자 대상 집중 접종 캠페인 시행</li> </ul> </li> </ul>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어업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나포</li> <li>· 불법 어획물 적발 및 경제수역 주권 보호 강화 방침</li> </ul> </li> <li>- 도로 불법 주정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혼잡 및 사고 위험 증가</li> <li>· 단속 강화에도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해결책 요구</li> </ul> </li> <li>- 간첩 조작 사건 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피해 입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li> <li>· 재심 결과 무죄 판결 및 연좌제 피해 보상 논의 진행</li> </ul> </li> </ul>

##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중국 경제 개방 발전 보고서, 2024 성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경제 개방 지수는 13.4% 상승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 마련. 경제 교류와 제도적 개방을 중심으로 한 정책 실행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li> <li>- 2023년 중국의 경제 개방 총지수는 29.75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제도적 개방과 개방 배치 지수는 각각 72.8%와 108.3% 증가. 이러한 성과는 법치화 수준의 향상과 함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 간 균형 발전 성과 취득</li> <li>- 향후 계획으로는 연해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내륙과 변두리 지역의 개방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예정. 동시에 대규모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해 규제와 관리 표준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li> </ul>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p>○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2024 새롭게 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12월 31일, 중국과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 최신 개정안이 발효되며,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 전망. 특히 서비스 무역과 투자에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li> <li>- 이번 협정 개정으로 제조업과 환경보호,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이 확대됨. 양국은 디지털 인프라, 전기통신, 그리고 신흥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디지털 경제와 혁신 기술의 성장을 함께 도모</li> <li>- 협정 개정은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 투명성을 높이는 데</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국</b>	<p>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은 더욱 깊어지고,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p>
	<p>○ <b>중국인민은행, 2025년 완화적 통화 정책 시행 예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중국인민은행은 적절한 유동성 공급과 통화 공급량의 안정적 증가를 목표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정을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li> <li>- 이러한 정책은 금융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조적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함. 특히, 금융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산업 전환 및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li> <li>- 2024년에는 두 차례의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했으며, 2025년에는 금융 정책의 정교함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 리스크 관리 및 개혁 추진을 통해 안정적 경제 환경을 조성할 계획</li> </ul>
	<p>○ <b>후베이 이창, 친환경 선박 산업으로 성장 견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베이성 이창은 2025년까지 60척 이상의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며, 장강 수로의 녹색 물류와 저탄소 교통을 선도할 계획임. 이를 통해 장강 중상류 지역의 친환경 선박 중심지로 자리 잡는 실정</li> <li>- 이창에서 건조된 순수 전기 선박 및 수소 에너지 선박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효율 설계를 자랑하며, 세계 최대의 전기 화물선과 관광선 등의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li> <li>- 2026년까지 이창은 녹색 선박 제조 산업의 연간 생산량을 300척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간 총생산액 500억 위안을 달성하여 글로벌 선박 제조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할 계획</li> </ul>
<p>○ <b>RCEP 3주년, 지역 경제 협력 가속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CEP 시행 3년 동안 무역 장벽 완화와 통관 간소화로 회원국</li> </ul>	

**국가****제목 및 주요 내용****중국**

간 경제 협력과 교역 증대가 이뤄짐. 특히, 농산물과 제조품의 무역이 활발해지며 공급망 통합이 가속화

- 중국은 RCEP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주요 수출입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회원국 간의 관세 혜택이 적용되어 경제적 이익을 공유
- RCEP는 무역 자유화와 통합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경제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여 경제적 잠재력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인민은행, 금융 발전과 개혁 방향 제시**

- 2025년 중국인민은행은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와 구조적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 또한, 디지털 위안화 연구를 강화하며 국제적 금융 협력에도 적극 나설 예정
- 중앙은행은 금융 개혁 및 개방을 통해 고도화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적 환경을 마련할 계획
- 금융 리더십과 혁신적 기술 적용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 및 환경 친화적 금융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

○ **윈난성, 대규모 풍력 발전 프로젝트 추진**

- 윈난성은 신규 및 확장된 풍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에너지 구조 전환과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국가 에너지 전략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추진
- 주요 프로젝트는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확대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
- 윈난성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에너지 목표를 지원하는



**국가****제목 및 주요 내용**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활력 증대를 도모하며 장기적인 에너지 자립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

**중국**

## ○ 2024 인공지능 대모델 산업 보고서 발표

- 인공지능 대모델 산업은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이며,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과 다중 모드 기술의 융합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 데이터 관리와 비용 문제 등 개발상의 도전 과제가 존재
- 보고서는 자립형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의 상업적 응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
-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을 제안

## ○ 에너지법 시행, 수소 에너지 산업 성장 촉진

- 2025년 에너지법의 시행으로 수소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로 포함되며, 관련 산업의 법적 지위와 정책적 지원이 강화됨. 수소 연료전지 기술 발전과 인프라 확장이 주요 목표로 설정
- 수소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경제적 가능성을 제시
- 산업 및 지역 경제 협력을 통해 수소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

## ○ 중국 탄소 배출권 시장, 누적 거래액 430억 위안 돌파

-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2024년까지 누적 거래량 6.3억 톤과 거래액 430억 위안을 기록하며 지속 성장세 유지
- 주요 산업에서 탄소 배출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 및 시장 거래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 정부는 시장 확장과 국제 협력을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2025년 경제성장 지속 전망

- 말레이시아는 내수와 투자 증가를 기반으로 2025년 GDP가 최대 6%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경제학자들은 지역 투자 허브 역할과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요인들은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경제 변동 속에서도 강한 경제적 위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민간 소비와 투자가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소득 증가와 낮은 실업률로 인해 소비 증가가 지속될 전망.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 및 민간 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RCEP 및 CPTPP를 활용해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 경제학자들은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무역·투자 기회를 창출하며, 지정학적 도전 속에서도 중립적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 ○ 말레이시아, AI를 통한 태국과의 불법 국경 통로 폐쇄 추진

- 말레이시아 정부는 태국 국경에서 발견된 169곳의 불법 통로를 폐쇄하기로 결정.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와 밀수 활동을 줄이는 것이 목표임. 단계적 폐쇄를 통해 국경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정책
- CCTV 설치와 AI 기술 도입을 통해 국경 통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임. AI는 출입국 모니터링, 위험 평가 및 관리, 비상 상황 대응 등의 핵심 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며, 보안 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
- AI 기술은 안면 인식과 문서 처리를 통해 사람과 화물 검사 과정을 간소화할 것으로 계획. 이로 인해 국경 보안이 강화되는 한편, 저위험 화물의 통관 속도가 빨라져 효율적인 국경 관리와 물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소셜미디어 사업자 대상 허가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서비스 플랫폼에 CASP 허가제를 도입함. 사용자 8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플랫폼이 대상이며, 틱톡과 위챗이 운영 라이선스를 발급. 이는 온라인 안전과 규제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li> <li>- 텔레그램은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완료 중이며, 메타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포함해 라이선스 신청을 진행. 반면, 엑스는 사용자 수 기준 미달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고, 유튜브는 법적 우려로 신청하지 않은 실정</li> <li>-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는 라이선스 요건 위반 시 조사와 규제를 강화할 방침. 정부는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메타와 틱톡을 비롯한 플랫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에 주력</li> </ul>
태국	<p>○ 태국, 브릭스 신규 파트너 국가로 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은 2025년 1월 1일 브릭스 파트너 국가로 공식 합류함. 브릭스는 9개 정회원국과 13개 파트너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경제 협력체로 주목받고 있음. 태국의 가입은 브릭스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li> <li>- 태국은 브릭스 회원국과 무역, 투자, 관광, 인적 교류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 2017년 브릭스 플러스 프레임워크 가입 이후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파트너 국가 가입으로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창출할 전망</li> <li>- 태국 외교부는 브릭스와의 협력을 통해 정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설정. 태국은 브릭스와 아세안 및 APEC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글로벌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li> </ul>
	<p>○ 태국, 방콕 북부 발전소 프로젝트 1단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은 논타부리주 방콕 북부 지역에 700MW 규모의 천연가스</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p>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 이 프로젝트는 국가 전력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PDP의 일환으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전력공사는 발전소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발표하며 예산 검토 및 입찰 절차를 진행. 발전소 프로젝트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주목</li> <li>- 방콕 북부 발전소는 2028년부터 상업용 전력 공급을 시작할 계획. 이는 방콕 및 수도권 지역의 전력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li> </ul>
필리핀	<p>○ 필리핀 EU 일반특혜관세제도 상실 우려에 아세안 중심 무역으로 전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은 GSP+와 DCTS 혜택 상실 가능성에 대비해 아세안 중심 무역 전략으로 전환을 추진. 이는 자국 수출품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li> <li>- 세계은행에 따르면 필리핀은 중상위 소득국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무역 혜택 상실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아세안 역내 무역을 확대</li> <li>- 필리핀은 신규 무역협정을 모색하며, EU와 FTA, UAE와 CEPA 협정을 논의. 한국과의 FTA 발효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 예상</li> </ul> <p>○ 필리핀, 2025년 신재생에너지 경매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경매를 확대하고 있음. 에너지부와 관련 기관은 송전망 개선 및 항만 확장에 주력</li> <li>- 2025년 3차 경매에서는 수력 및 지열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4,475MW 규모의 계약이 체결될 예정임. 신재생에너지 경매 기준가격도 검토</li> <li>- 필리핀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5%, 2040년까지</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p>50%로 확대할 목표임. 바이오연료, 전기차 인프라, 에너지 효율화 조치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p>
	<p>○ 필리핀, 2024년 경제성장을 아시아 최고 수준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경제는 2024년 5.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 최고 성장률 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기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본 형성과 정부 지출 확대가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 수행</li> <li>- 물가상승률은 쌀 관세 인하 및 카드와 매장 확대로 안정세를 유지, 경제 당국은 연말 소비 증가와 안정적인 해외 송금을 통해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li> <li>- 필리핀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8%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며, 기업 환경 개선과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상위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li> </ul>
베트남	<p>○ 베트남, 중국산 풍력타워에 97% 반덤핑 관세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은 중국산 풍력타워에 대해 9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5년간 해당 조치를 유지할 방침. 이는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li> <li>- 베트남은 15개월간 조사 결과, 중국산 타워가 국내 시장에 피해를 줬음을 확인, 일부 중국 기업은 덤핑 혐의에서 제외</li> <li>- 이번 관세는 자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베트남 풍력타워의 입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li> </ul>
	<p>○ 베트남, 소셜미디어·게임 등 인터넷 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은 147번 법령을 시행해 소셜미디어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내 삭제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상황</li> <li>- 시민단체는 이번 법령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셜커머스 등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li> <li>- 미성년자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을 통해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와 사회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li> </ul>

**국가****제목 및 주요 내용****일본****○ 도쿄가스,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지속 가능성 도전**

- 도쿄가스는 치바현 이치하라시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완공했으며, 연간 약 17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 연료로 목질 펠릿을 사용하며, 정부의 고정가격 매입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계획
- 목질 펠릿은 북미 및 동남아에서 수입되며, 국제 인증을 받은 규정을 준수. 그러나 연료 수급의 안정성과 자원 가격 변동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
- 바이오매스 발전은 자연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치바현 전력 수요 증가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 도쿄가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에 집중

**○ 교토시, 제2자녀 이상 보육료 무상화 정책 발표**

- 교토시는 2025년 4월부터 제2자녀 이상의 보육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 소득 제한 없이 적용되며, 약 55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예정임. 관련 예산으로 4.2억 엔을 편성
- 이번 정책은 인구 유출과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자치단체 대비 교토시 보육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
- 교토시장은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 유입과 출생률 회복을 도모하고자 노력. 시민들에게 '교토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홋카이도, 재생 가능 에너지 허브로의 전환**

- 홋카이도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잠재력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며, 최근 지정된 해상 풍력 발전 구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환경 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
- 석탄 산업의 쇠퇴 이후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로 전환하며, 탈탄소화를 목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추진. 이는 기존 석탄 중심 경제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모델로 주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 홋카이도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일본을 선도할 잠재력 소유</li> </ul>
	<p>○ 도쿄, 신축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도는 2025년 4월부터 신축 단독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추진. 약 225만 가구가 설치 가능 대상으로 지정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li> <li>- 정책은 전력 수요 증가와 탈탄소화를 위한 조치로,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 설치율 제고를 위해 홍보와 보조금 지급이 포함</li> <li>- 일부 주민들은 초기 비용 및 유지보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도쿄도는 관련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li> </ul>
	<p>○ 파나소닉, 희소 금속 없이 수소 생산 기술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나소닉은 이리듐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극 기술을 개발. 철과 니켈 화합물을 사용하여 지리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소 생산을 가능</li> <li>- 이 기술은 재생 가능 에너지와의 결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 파나소닉은 2030년까지 이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li> <li>- 수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파나소닉은 관련 사업 확장과 글로벌 수요 대응을 통해 환경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상황</li> </ul> <p>○ 홋카이도, 재생 가능 에너지와 산업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홋카이도 기업들은 신년 첫 업무를 시작하며, 탈탄소와 신산업 진출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와 연계된 신사업 기대가 높으 것으로 예상</li> </ul>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 도내 주요 전력 회사들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지역 내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호아. 이는 지역 자원 활용과 연계 가능
- 금융 및 산업계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과 AI 활용 등 혁신적 경영 방식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 핫카이드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 탐색

### ○ 규슈·오키나와, 반도체 투자와 관광으로 활기

- 규슈와 오키나와는 2024년 인바운드 관광 증가와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 국제선 증편과 이벤트로 외국인 방문이 크게 증가
-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투자로 제조업 부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 기대, 생산과 고용 창출 효과가 주목
- 규슈 지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높은 임금 상승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관광과 제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

### ○ 여성 관리직 비율 확대 위한 일본의 노력

- 일본은 여성 활약 촉진법 제정 10년째를 맞아 여전히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추진. 관리직 여성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실정
- 정부는 남녀 임금 격차와 관리직 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보고 및 공개 요건을 확대하고, 성평등 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진행
- 그러나 가정 내 육아와 가사 분담의 불균형, 장시간 근로 문화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화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오사카 만국박람회, 지역 경제 성장 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는 개인 소비와 외국인 관광 증가로 간사이 지역 경제 성장률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 주요 산업 투자와 관광 인프라 강화가 기대</li> <li>-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호텔 공급 부족 문제와 중국 경제 둔화 영향은 하방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실정, 관광 수요 대응 방안이 중요</li> <li>- 만국박람회 이후에도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와 관광 자원 활용이 필요하며, 간사이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li> </ul>

\* 출처: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